

43과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
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
제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
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수
차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
다.

첫번째로는요 예 우리는 열매 맺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위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는요. 예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두 가지
교훈해 줄려고 한겁니다.
잠깐 이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의 수난 주간 중에 목요일 밤에
있는 것으로 공과복음
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본문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33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부각시격주는 부분 이죠. 그중에 요한복음 15장은요 크게
네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내가 참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절
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성도들 우리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8절부터 27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의 어떠한 관
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7절 내용인
거죠 세 번째로는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에 대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 이
것으로 결론 맺는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1절부터 11절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

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라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비유

를 하셨죠.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먼저 에베소서 1장 여기 15장은 잡아 놓겠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음.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뭘니까? 예 그

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풍성한데로 모든 쓸 것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겠다- 주시겠다는 얘기

잖아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본문 여기 보면
본문 5절 제가 읽겠

습니다‘

a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

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할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

다, 여기 보면요 에스겔서 15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에스겔
15장입니다. 1절

“여호와와의 말씀이 대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라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포도나무가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예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건축용 자재로도 사용 못 합니다.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 수 도
없고 그다음에 못
도 아름답게 피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왜
쉽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인격에 대한 이야기죠 예
9가지에 대해서 나
왔습니다. 사랑 희락 기뻐하는 것 화평 서로 확복하는 거죠. 오래참음 서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하는 겁니다.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할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요 잠언 11장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 또다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람을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바
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물 두 번째 보시면
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
가)번에 앞만 무성하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제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자 그렇다면 앞만 무성하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무엇을
못하느냐 예 여기 보
니까 첫 번째 뭐냐 ‘거듭나지 못한 일반 기독교인들 그러나 주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예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

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부터 23절은요 열매에 대한 교훈이죠.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이야기하죠? ‘아

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 나쁜 나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비유

해서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나쁜 나무도

교회에는 다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

을 어떻게 압니까? 열매예요. 성령이 내안에 계시면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거듭났어도 세상 속에 거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들 예 예 그들을 제해 버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면요.

프린트물에 보면 교회 안에

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 즉 세속적인 죄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세력들 돈의 세력 거

짓된 교리와 여러 장애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제가 보면

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주

선 체계가 무너져요. 교사라는게요. 예전에는 엄청 프라이드도 강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정말 힘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나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여기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전지작업을 하신다. 예 치신다는거

쇼.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

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이 뭘니까 나를

치켜세우는 겁니다.

그cy 자랑하는게 뭘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뭘니까

하나를 위함이다
덩어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목적이
있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갖고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묵은 누
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교회에 뭐였습니까?
세속적인 죄였습니
다.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웁니까?
예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
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치십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늘 그래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
고 그랬죠 데마가 그랬잖아요- 치시는 와중에 떠나는 사람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랬
습니까? 예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그브로로
가고” 마가 한사람 때문에 이 사도 시대 때 선교의 두 축이었던 바나바와
사도바울일 갈라섭
니다. 보면요 마가가 큰 잘못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수년이 지난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16절부터 23절은요 열매에 대한 교훈이죠.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이야기하죠? ‘아
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 나쁜 나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비유
해서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나쁜 나무도 교회에는 다니는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열매예요. 성령이 내안에 계시면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거둬냈어도 세상 속에 거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예 예 그들을 제해 버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면요. 프린트물에 보면 교회 안에 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 즉 세속적인 죄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세력들 돈의 세력 거짓된 교리와 여러 장애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제가 보면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주신 체계가 무너져요. 교사라는게요. 예전에는 엄청 프라이드도 강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정말 힘써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나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여기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전지작업을 하신다. 예 치신다는거 쇼.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이 율니까 나를 치켜세우는 겁니다.

그쵸 자랑하는게 율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뭍니까 하나를 위함이다 덩어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목적이 있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갖고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교회에 뭐였습니까? 세속적인 죄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도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됩니까? 예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치십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늘 그래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그랬죠 데마가 그랬잖아요. 치시는 와중에 떠나는 사람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그브로로 가고” 마가 한사람 때문에 이 사도 시대 때 선교의 두 축이었던 바나바와 사도바울일 갈라섭니다. 보면요 마가가 큰 잘못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서로 기도하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안에서 왜 갈라지냐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받게 뭐냐? 예 과실을 많이 맺는거다. 어떻게 붙어있음으로 해서 다른거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어있으면 변화되요.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물까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또 청년회에서는 임원 형제자매들이 계속해서 그러는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여기 요한복음 1장 프린트물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붙어만 있으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

요한복음 1장 16절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라” 어떤 은혜

를 주십니까? 예 구원받은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신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1년동
안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문리~~은혜를~~ 받고 직장 잡으면 그것만 은혜입니까? 그건 육신적인거예요. 더
까? 내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죠.

여기 나)번에 보면요.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사람들이 이걸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예 교제에서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안에 저가 내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가 내안에 있고 내가 저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임을
가고 안가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한 겁니다-
연합이 되었을 때에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

배려~~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세요?
망나니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보시죠. 프린트물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버렸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 말씀 딱 묵상해보면 두루
다니며 계속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두루 다녔습니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말로만요. 기도하고
그랬다는게 아니예요.
공과만 딱 준비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두루 다녔어요.

마태복음 9장 잠깐보죠.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여기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일이 나오죠. 가르쳤다.

복음을 전파했다.

또 고쳤다. 그런데 어떻게요. 전제가 하나있죠.

두루다니며...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흠어

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마귀도 두루다

니고, 구원받은 성도도 두루 다녀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행여 우리가 두루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잃어진 경우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말로만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직접 옮겼습니다. 발로 뛰었어요.

사도행전10장 38절---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

름불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자를 고치셨으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고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2006년학년도가 다 물났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새학년도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두루 다녀야

됩니다. 아이들 형편

에 대해서요. 일일이 다 잘 알아야 되요. 말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겁니다. 교사로

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요 두루

다닙시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고쳐야할 가르쳐야할 아이들을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 저희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시켜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에 아무탈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오시는 그날 까지 주어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주길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